

액세서리 착용이 여성의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생활문화연구소 교수

The Effect of Accessory Wearing on Professionalism and Attractiveness of Women

Myoung-Hee Le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Research Institute of Living Cul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6. 2. 17. 접수; 3. 2.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differences of women's professionalism and attractiveness according to the perceiver's level of interest on accessory, the object person's age, and accessory wearing. Subjects were 178 college women in Seoul. The evaluation of the accessory wearing was divided into five dimensions: professionalism, attractiveness, loveliness, femininity, and individuality. The look of accessory wearing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evaluation of professionalism and attractiveness. The women in their 40's wearing the scarf on a jacket were evaluated high in professionalism, attractiveness, and femininity. The 40's wearing the cap with a T-shirt were evaluated low in professionalism and attractiveness. The women in their 20's wearing the cap with a T-shirt were evaluated high in attractiveness and loveliness. Wearing of scarf enhanced professionalism, femininity, and individuality, wearing necklace enhanced femininity, and wearing cap enhanced loveliness of women. Perceiver's level of interest on accessory g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and attractiveness. The object person's age g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loveliness, femininity, and individuality. Professionalism, attractiveness, loveliness, and femininity had interaction effects according to object person's age and accessories. When women in their 40's wore scarf or necklace, their professionalism was raised more than those in their 20's. Therefore accessory wearing was more effective to the women in their 40's than the 20's.

Key Words: accessory(액세서리), professionalism(전문성), attractiveness(매력성), perceiver(지각자), object person(대상자)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의 질적 향상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외모는 사회적 상호작용시 타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외모를 관리하게 된다. 우리는 외모 매력성을 높임으로써 일상생활

에서 자신을 상대방에게 보다 능력있게 보일 수 있고 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연출하여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외모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개인의 신체적 조건, 의복, 액세서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은 서로 결합되어 자신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볼 때 개인의 신체유형, 의복 스타일이나 의복 색에 의해 매력성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지각되었고,¹⁾²⁾ 신체유형, 의복, 헤어스타일은 전문성 평가에도 영향을 주었다.³⁾⁴⁾⁵⁾

액세서리는 의복의 부속품으로 사용되지만 인상을 깊게 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상징성과 함께 미적 감각을 나타내면서, 착용자의 교양, 개성 등을 파악하게 한다.⁶⁾ 그러므로 액세서리 착용을 통하여 착용자는 연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지각자는 상대방의 전문성이나 매력성 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평가를 조사한 연구는 의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며, 전문성이나 매력성 평가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근래에 여성전문직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액세서리가 전문성이나 매력성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더욱 필요시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며, 아울러 지각자의 액세서리 관심도와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액세서리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인상형성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여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의 차이를 조사한다.

둘째, 여성의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가 액세서리 착용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셋째, 지각자의 액세서리 관심도,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 착용이 여성의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액세서리 착용

액세서리는 의복 외관을 돋보이게 하거나 완성시키기 위해 부착하거나 조화시키는 소품으로서⁷⁾, 실용성 및 기능성이 강조되는 것과 장식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용적인 액세서리는 모자, 가방, 구두, 단추, 스카프 등이 있고, 장식적인 액세서리는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과 같이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적 효과를 더 하기 위하여 장식하는 것이 있다.⁸⁾ 액세서리의 중요한 역할은 옷차림시 전체적인 실루엣과 조화를 이루게 하거나 평범한 의복에 액센트를 줌으로써 의복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⁹⁾

액세서리를 통하여 착용자는 연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액세서리에 의해 로맨틱, 청순한, 지적인 모습,¹⁰⁾ 혹은 엘레강스, 클래식, 내추럴 이미지가 강조될 수 있다.¹¹⁾ 실증적인 연구에서 웨딩드레스의 허리에 리본이 달린 디자인은 귀여움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고,¹²⁾ 큰 목걸이의 착용은 능력 요인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¹³⁾

이송자, 이현정¹⁴⁾은 액세서리 착용시에 추구하는 느낌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20대는 자기만족을 위한 비율이 높으나, 30-50대는 여자다움의 비율이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액세서리 착용을 통해 여성적인 면을 더 많이 추구한다고 하였다. 조기년¹⁵⁾의 연구에서 여성들이 비교적 많이 착용하는 액세서리는 목걸이나 반지, 귀걸이라고 하였으며, 액세서리 착용에 의하여 가장 추구하고 싶은 이미지는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라고 하였다. 양리나¹⁶⁾는 스카프에 의해 대담한, 우아한, 고상한 느낌 등이 표현된다고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장신구의 종류에 의해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확인되었는데,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스카프 등의 액세서리는 여자다움을 나타내며,¹⁷⁾ 머리핀, 스카프는 여성의 역할을 대표하는 장신구로 인식된다고 하였다.¹⁸⁾

2. 전문성과 매력성 평가

우리 사회가 지식 정보 사회로 이전되면서 여성 인력의 사회활동이 보편화되어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여성의 5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¹⁹⁾ 전문직 여성의 진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²⁰⁾

여성 외모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연구에서 *Thurston, Lennon, Clayton*²¹⁾은 연령, 신체유형, 유행, 의복유형의 효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각대상자의 연령이나 신체유형에 관계없이 슈트가 원피스드레스보다 더욱 전문직업성이 높게 보인다고 하였다. 사무직 및 전문직 남성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들 중에서도 연령이 높은 여자를 연령이 낮은 여자보다 더욱 전문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른 체형일 때 전문직업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고, 최신유행의 디테일이 있는 의복은 일반유행 디테일이나 클래식 디테일을 사용한 경우보다 전문직업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헤어스타일과 전문직업성 관련 연구에서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전문직업성이 높았으며, 직모는 웨이브진 머리보다, 짙은 색은 밝게 염색한 머리보다 전문직업성이 높았고, 짙은 색 짧은 생머리가 가장 전문직업성이 높게 평가되었다.²²⁾

전문성에는 지적 특성, 능력 요소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보수적인 스타일과 포말한 스타일은 지적 특성이 높게 평가되었고,²³⁾ 정장 스타일 착용자는 다른 스타일보다 지능과 학업성취도가 높게 평가되었다.²⁴⁾ *Bulter*와 *Rosset*²⁵⁾의 연구에서 진(jean)을 착용한 교사는 슈트를 착용한 교사보다 지적 능력이 낮고 선생님다운 외모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Damhorst*²⁶⁾의 연구에서 슈트차림은 지위가 높으며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Rees, Williams, Giles*²⁷⁾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면접시험의 경우 넥타이를 맨 모습이 더 지적인 모습으로 평가되었으나 캠퍼스의 맥락에서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경우가 더 지적으로 평가되었다. 전호경, 황선진²⁸⁾은 입산부의 의복스타일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의복이나 액세서리는 자신의 외모매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형성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강경자, 임지영²⁹⁾은 넥타이 무

늬와 양복의 배색에 따라 매력있는 이미지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의복 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정장 스타일이나 슈트는 캐주얼한 스타일에 비해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30),31)} 그러나 *Pack*³²⁾의 연구에서는 대담한 스타일이 매력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류숙희, 김보연³³⁾의 연구에서도 엘레강스한 스타일, 드라마틱한 스타일, 로맨틱한 스타일이 더 매력적이며 캐주얼한 스타일과 매니쉬한 스타일은 매력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은령, 이경희³⁴⁾는 여성복의 어깨 폭이 넓을수록 매력성이 낮아지고, 스커트 폭의 비율이 넓어질수록 귀엽고 매력적이며, 좋아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주현, 강혜원³⁵⁾의 연구에서는 리본칼라의 블라우스보다 셔츠칼라의 블라우스가 팬츠와 조화될 때 더 매력적인 인상으로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의복 스타일, 의복장식, 넥타이, 헤어스타일 등의 외모 관련 요소에 따라 전문성, 능력, 지적 특성, 매력성이 달리 나타났으므로 액세서리 착용은 여성의 전문성과 매력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I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문지와 자극물을 사용한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2 \times 2 \times 4$ (지각자의 액세서리 관심 \times 지각대상자의 연령 \times 액세서리 착용)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액세서리를 착용한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측정도구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40대와 20대의 타원형 얼굴의 여성 2명을 모델로 선정하였으며, 의복유형은 재킷과 티셔츠를 택하였다. 의복색은 가능한 색의 영향을 배제하면서 착용가능성이 높은 색을 택하기 위하여 무채색으로서 검정색 재킷과 흰색 티셔츠를 사용하였다. 액세서리의 종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목걸이, 스카프,

모자를 착용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실험연구의 한 계로 인하여 자극물은 총 12가지 종류로 제작하였다. 40대 모델은 8가지 스타일로서 A1에서 A8까지의 기호를 붙였다. 그 내용은 A1-재킷, A2-재킷에 앞 스카프, A3-재킷에 어깨 스카프, A4-재킷에 햇(hat), A5-티셔츠, A6-티셔츠에 목걸이, A7-티셔츠에 앞 스카프, A8-티셔츠에 캡(cap)을 착용한 모습이다. 20대 모델은 4가지 스타일을 연출하였으며, A9에서 A12까지의 기호를 붙였다. 그 내용은 A9-티셔츠, A10-티셔츠에 목걸이, A11-티셔츠에 앞 스카프, A12-티셔츠에 캡을 착용한 모습이다.

재킷은 긴 소매와 테일러드 칼라가 있는 스타일이었고, 티셔츠는 짧은 소매의 라운드 넥라인형이었다. 재킷에는 모자의 테가 6m 넓이인 햇을 착용하였고 티셔츠에는 캡을 착용하였다. 재킷에 착용한 스카프는 90×90cm의 정사각형 형태였다. 앞 스카프는 정사각형 형태를 대각선으로 접어서 테일러드 칼라 안쪽에 늘어뜨렸으며, 앞 단추를 열어서 스카프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였다. 어깨 스카프는 대각선으로 스카프를 접어 어깨 왼쪽에 둘러 어깨 오른 쪽에서 양 끝을 묶은 형태였다. 티셔츠에 착용한 스카프는 35×160cm의 직사각형 형태로서 가슴 중앙 부분에서 묶어서 늘어뜨린 모습이다. 목걸이는 가는 체인에 지름 2cm의 원판 장식 5개가 4cm의 간격으로 늘어진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 테일러드 재킷에 햇을 착용한 경우와 티셔츠에 캡을 착용한 두 가지 모습을 사용한 것은 액세서리가 정장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에 미치는 효과를 모두 알아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모델이 실험용 의복과 부속품을 착용한 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자극물을 출력하였다. 자극물은 허리둘레 아래 20cm 정도까지의 상반신의 모습으로서 크기는 9×13cm였다.

전문성 평가에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는 선행연구³⁶⁾를 참고하여 6문항을 택하였으며, 매력성 평가에 사용된 척도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묘사하는 어휘를 추출하는 예비검사와 선행연구^{37),38)}에서 사용한 용어를 참고하여 12문항을 택하였다. 따라서 총 16개의 7점 양극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진 문항이 사용되었다. 액세서리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출시 어울리는 의류부속품 착용에 관심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하는 1문항이

포함되었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평가자로서의 피험자는 서울지역의 여대생 17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명의 피험자가 4개의 자극물을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12종류의 자극물 각각에 대하여 64명의 피험자가 반응하도록 배치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결과 한 개의 자극물을 58-62명이 평가하게 되었고, 전체 피험자 수는 178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10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액세서리 착용 평가의 요인분석

액세서리 착용 형태의 전문성 및 매력성을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16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5개 요인을 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요인 1은 책임성 있는 - 책임성 없는, 성공적인 - 성공적이지 아닌, 전문가다운 - 전문가답지 않은 등 전문성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전문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귀여운 - 귀엽지 않은, 발달한 - 발달하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귀여움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여성적인 - 남성적인, 우아한 - 우아하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여성성 요인이라고 하였고, 요인 4는 세련된 - 촌스러운, 매력적인 - 매력적이지 아닌 등이 포함되어 매력성 요인이라고 하였다. 요인 5는 개성적인 - 평범한 항목이 포함되어 개성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성 관련 항목은 하나의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나 매력성 관련 내용은 매력성, 귀여움성, 여성성, 개성의 4개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7 이상이고 요인 5

까지의 누적변량은 76.28%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계수는 .69 이상으로서 신뢰도가 만족할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매력성, 귀여움성, 여성성 요인의 도출은 이미연, 이명희³⁹⁾연구와 유사하였고, 개성 요인의 도출은 김유진, 이경희⁴⁰⁾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전문성 요인의 도출은 Thurston, Lennon, Clayton⁴¹⁾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상에서 결정된 요인은 문항점수를 합하여 문항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1〉 액세서리 착용 평가의 요인분석

요인 1. 전문성	요인부하량
책임성 있는 - 책임성 없는	.85
유능한 - 무능한	.82
지성적인 - 비지성적인	.81
자신감 있는 - 자신감 없는	.75
성공적인 - 성공적이지 아닌	.74
전문가다운 - 전문가답지 않은	.71
변량 = 29.23% 누적변량 = 29.23%	
고유치 = 4.68 α 신뢰도 = .91	

요인 2. 귀여움성	요인부하량
귀여운 - 귀엽지 않은	.86
발랄한 - 발랄하지 않은	.81
청순한 - 청순하지 않은	.57
변량 = 13.65% 누적변량 = 42.88%	
고유치 = 2.18 α 신뢰도 = .69	

요인 3. 여성성	요인부하량
여성적인 - 남성적인	.88
우아한 - 우아하지 않은	.74
변량 = 13.33% 누적변량 = 56.21%	
고유치 = 2.13 α 신뢰도 = .76	

요인 4. 매력성	요인부하량
내가 좋아하는 - 내가 싫어하는	.85
세련된 - 촌스러운	.58
매력적인 - 매력적이지 아닌	.58
어울리는 - 어울리지 않는	.47
변량 = 12.01% 누적변량 = 68.22%	
고유치 = 1.92 α 신뢰도 = .83	

요인 5. 개성	요인부하량
개성적인 - 평범한	.86
변량 = 8.06% 누적변량 = 76.28%	
고유치 = 1.29	

2.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의 차이

액세서리 착용 형태에 대한 전문성 및 매력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2 종류 자극물에 따른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에서 전문성 요인은 5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40대 여성이 재킷을 입고 앞에 스카프를 장식하거나 재킷 측면에 스카프를 장식한 모습이 전문성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여성이 티셔츠에 캡을 착용한 모습은 전문성이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재킷 착용 모습이 티셔츠 착용보다 전문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나, 40대 여성은 재킷과 티셔츠 모두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이 전문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20대 여성이 티셔츠를 착용한 모습은 액세서리 착용여부가 전문성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중년 여성의 경우는 스카프와 같은 액세서리 사용이 전문적인 이미지를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력성 요인은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40대 여성이 재킷을 입고 앞에 스카프를 장식한 모습과 20대 여성이 티셔츠를 입고 캡을 착용한 모습이 매력성이 가장 높았다. 40대 여성이 티셔츠를 입고 캡을 착용하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 20대 여성이 티셔츠에 목걸이나 스카프를 착용한 모습은 매력성이 비교적 낮았다. 따라서 40대 여성이 캡을 착용하는 것은 매력성 증진에 효과가 없으나, 20대 여성이 캡을 착용하는 것은 매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귀여움성 요인은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20대 여성이 티셔츠를 입고 캡을 착용한 모습이 귀여움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40대 여성이 재킷을 착용한 모습은 액세서리 착용여부에 상관없이 귀여움성이 모두 낮았다. 즉 귀여움성은 액세서리 착용보다는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같은 20대 여성이라도 캡의 착용은 귀여움성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성 요인은 6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40대 여성이 재킷을 입고 어깨에 스카프를 장식하거나 재킷 앞에 스카프를 장식한 모습이 여성성이 가

<표2> 자극물에 따른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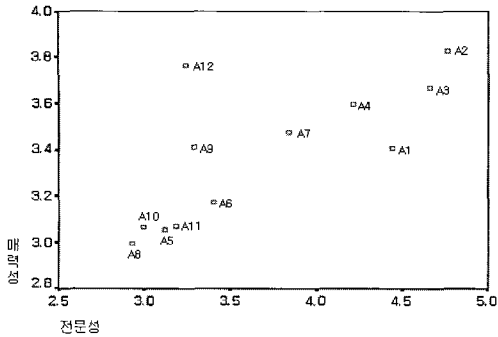
자극물	A8	A10	A5	A11	A12	A9	A6	A7	A4	A1	A3	A2
전문성	2.93	2.99	3.12	3.18	3.24	3.28	3.40	3.84	4.22	4.44	4.66	4.76
F=27.43**	-----e -----d -----c -----b -----a											
자극물	A8	A5	A10	A11	A6	A1	A9	A7	A4	A3	A12	A2
매력성	3.00	3.05	3.06	3.07	3.17	3.41	3.41	3.47	3.59	3.67	3.77	3.83
F=3.52**	-----c -----b -----a											
자극물	A1	A2	A3	A4	A11	A6	A7	A5	A8	A10	A9	A12
귀여움성	2.10	2.13	2.41	2.44	2.84	2.87	3.20	3.22	3.26	3.68	3.83	4.24
F=22.72**	-----d -----c -----b -----a											
자극물	A12	A8	A4	A5	A1	A9	A10	A11	A6	A7	A2	A3
여성성	2.31	2.45	2.78	3.18	3.35	3.59	3.77	3.89	4.35	4.59	4.60	4.73
F=37.37**	-----f -----e -----d -----c -----b -----a											
자극물	A5	A1	A9	A2	A6	A8	A10	A3	A7	A11	A12	A4
개성	2.14	2.42	2.57	2.90	3.03	3.17	3.29	3.44	3.57	3.60	3.81	4.52
F=11.20**	-----g -----f -----e -----d -----c -----b -----a											

*p<.05 **p<.01, A-g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 | | |
|--------------------|------------------|-------------------|
| A1: 40대-재킷 | A5: 40대-티셔츠 | A9: 20대-티셔츠 |
| A2: 40대-재킷, 앞 스카프 | A6: 40대-티셔츠, 목걸이 | A10: 20대-티셔츠, 목걸이 |
| A3: 40대-재킷, 어깨 스카프 | A7: 40대-티셔츠, 스카프 | A11: 20대-티셔츠, 스카프 |
| A4: 40대-재킷, 햇 | A8: 40대-티셔츠, 캡 | A12: 20대-티셔츠, 캡 |

장 높았으며, 20대와 40대 여성이 티셔츠를 입고 캡을 착용한 모습은 여성성이 가장 낮았다. 즉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캡의 착용은 여성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캡이 운동모자로서 동적인 이미지를

주므로 여성성을 감소시킨다고 해석된다. 또한 어깨에 스카프를 두른 것이 여성성이 가장 높았던 점은 목덜미 근처에 스카프를 주름지게 사용하는 것이 낭만주의를 나타낸다는 이론⁴²⁾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1) 액세서리 착용 형태의 전문성과 매력성 평가의 위치

개성 요인은 7개 집단으로 분류되어 액세서리 착용에 따라 그 효과가 비교적 많이 세분된다고 할 수 있다. 40대 여성이 재킷을 입고 햇을 착용한 모습은 개성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여성이 티셔츠를 입고 캡을 착용한 모습도 비교적 개성이 높았다. 또 40대 여성이 아무런 장식이 없이 재킷이나 티셔츠를 착용한 것은 개성이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이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것보다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은 개성을 증진시키며, 특히 모자의 착용이 개성 증진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개 요인의 평균치 중에서 전문성과 매력성 요인을 이용하여 2차원의 인식도를 작성하였다. 인식도 상에서의 각 의복 스타일의 위치는 <표2>에

서 제시된 평균치에 의해 결정되며, <그림1>은 매력성 요인을 X축, 전문성 요인을 Y축으로 배치한 결과이다.

<그림1>을 볼 때 재킷을 입은 40대 여성이 앞에 스카프를 장식한 모습은 전문성과 매력성이 가장 높았으며, 어깨에 스카프를 장식한 모습도 전문성과 매력성이 비교적 높았다. 20대 여성이 티셔츠에 캡을 착용한 모습은 매력성은 높았으나 전문성이 낮았다. 티셔츠에 캡을 착용한 40대 여성은 전문성과 매력성이 가장 낮았으며, 티셔츠에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40대 여성도 비교적 전문성과 매력성이 낮았다. 따라서 전문성과 매력성을 높이는 효과는 액세서리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각대상자와 지각대상자가 착용한 의복유형이 액세서리와 조화됨으로 인해 상승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지각자의 액세서리 관심도,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

티셔츠에 액세서리를 착용한 자극물을 대상으로 지각자의 액세서리 관심도,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지각자의 액세서리 관심도,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

변량원		전문성 F	매력성 F	귀여움성 F	여성성 F	개성 F
주효과	액세서리 관심(A)	8.21**	4.02*	.027	.12**	2.17
	연령(B)	2.16	1.02	15.79**	6.01*	4.41*
	액세서리(C)	2.78*	.64	9.31**	65.50**	13.78**
2원 상호작용효과	A×B	.00	.43	5.22*	.23	.20
	A×C	1.90	2.09	2.05	2.29	.66
	B×C	6.50**	5.18**	7.23**	6.26**	.65
3원 상호작용효과	A×B×C	1.04	.88	4.06**	1.55	.77
변인	속성	M	M	M	M	M
액세서리 관심	관심-하	3.41	3.39	3.39	3.68	3.29
	관심-상	3.15	3.17	3.40	3.40	3.06
연령	20대	3.18	3.33	3.66	3.37	3.33
	40대	3.32	3.17	3.13	3.64	2.97
액세서리	액세서리 무	3.20b	3.23	3.52ab	3.38b	2.35c
	목걸이	3.20b	3.12	3.26bc	4.07a	3.16b
	스카프	3.51a	3.27	3.02c	4.24a	3.59a
	캡	3.09b	3.39	3.77a	2.38c	3.50ab

*p<.05 **p<.01, a-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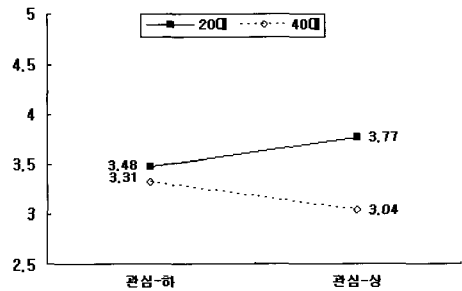
<표3>에서 주효과를 보면 액세서리 관심도는 귀여움성과 개성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전문성, 매력성, 여성성 평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평균치를 보면 액세서리 관심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극물의 전문성, 매력성, 여성성을 모두 낮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액세서리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은 의복 및 외모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 대부분의 외모 장식에 대하여 낮은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동일한 자극물을 더욱 세련되며 능력있다고 평가한 것⁴³⁾과 유행 고관여자가 의복 지식이 높아 의복평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내용과 유사한 결과라고 본다.

지각대상자의 연령은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귀여움성, 여성성, 개성 평가는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귀여움성과 개성은 20대 여성이 40대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으나 여성성은 40대 여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액세서리 착용은 전문성, 귀여움성, 여성성, 개성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매력성 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Duncan의 다범위검증 결과에 의해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전문성은 스카프를 착용한 모습이 가장 높았고, 캡, 목걸이 착용과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은 전문성이 낮았다. 특히 목걸이를 착용한 여성은 아무런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한 정도로 전문성이 낮았는데, 이것은 선행연구⁴⁵⁾에서 작은 장신구 착용과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능력 요인이 낮게 평가되어 같은 범주로 지각된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목걸이가 시진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실물로 제시했을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고 본다. 귀여움성은 캡을 착용한 것이 가장 높았으며, 스카프를 착용한 것은 귀여움성이 가장 낮았다. 여성성은 스카프를 착용한 모습과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높게 나타났고 캡 착용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선행연구⁴⁶⁾에서 목걸이와 머플러를 여자다운 장신구로 평가한 결과와 일치한다. 개성은 스카프를 착용했을 때가 가장 높았고 아무런 액세서리를 착용치 않은 사람은 개성이 매우 낮게 보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캡과 같은 모자를 착용한 모습은 귀여움성이 높게 지각되나 여성성이 낮게 보이며, 스카프 착용은 전문성, 여성성, 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목걸이 착용은 여성성을 높이며 아무런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은 개성적인 특성이 없게 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귀여움성은 지각자의 액세서리 관심도와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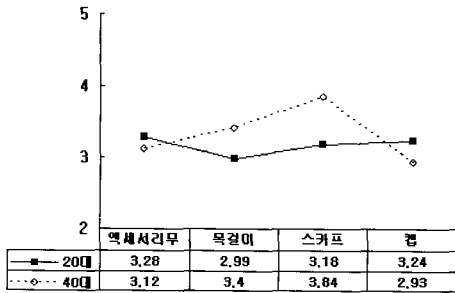
<그림2>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지각자의 액세서리 관심에 따른 귀여움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

액세서리 관심이 높은 사람은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귀여움성 평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20대 여성을 40대 여성보다 더 귀엽다고 평가하였으나, 액세서리 관심이 낮은 사람은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거의 인식하지 않았다. 이것은 액세서리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은 액세서리 관심이 낮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을 지각할 때 외모에 의한 평가기준이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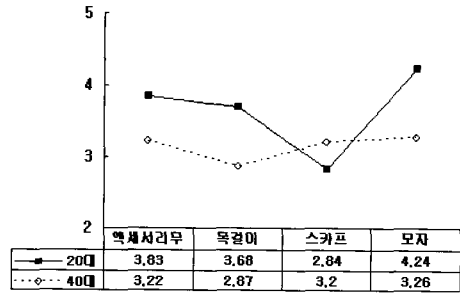
전문성, 매력성, 귀여움성, 여성성은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그림3>에서 <그림7>과 같다.

<그림3>을 볼 때 20대 여성에게는 액세서리 착용여부가 전문성 평가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40대 여성에게는 뚜렷이 영향을 주어 스카프나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전문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즉 40대 여성은 20대보다 티셔츠에 목걸이나 스카프를 착용한 것이 더욱 전문적이며, 성공적이고, 책임성 있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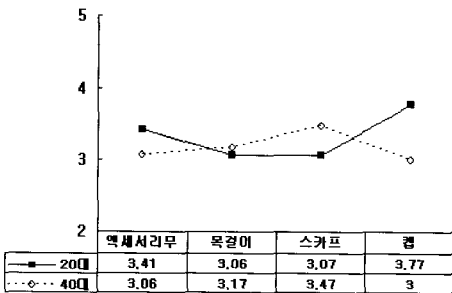
<그림4>는 매력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내는데 40대 여성은 스카프를 착용했을 때 매력성



〈그림3〉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전문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



〈그림5〉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귀여움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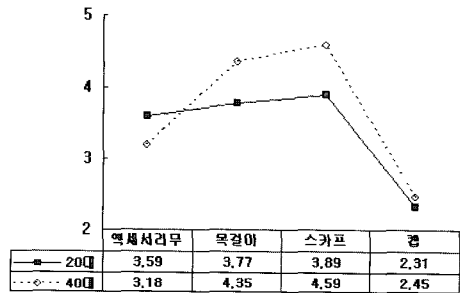
〈그림4〉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매력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

이 가장 높았으나, 20대는 캡을 착용했을 때 매력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아무런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은 40대보다 20대가 더 매력있게 평가되었다. 즉 액세서리는 연령이 낮은 여성보다 연령이 높은 여성에게 매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스카프는 40대의 매력성을 높이고 캡은 20대의 매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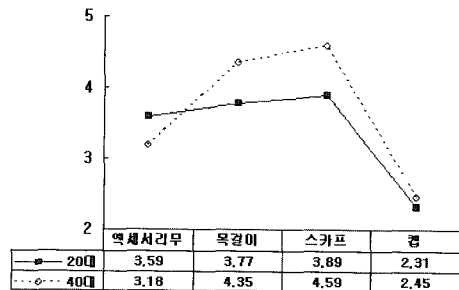
〈그림5〉에서 귀여움성에 대한 상호작용형태를 보면 40대는 액세서리 착용이 귀여움성 지각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20대는 크게 영향을 주었다. 20대가 스카프를 착용한 모습은 귀여움성을 감소시켰으나, 캡을 착용한 것은 더욱 귀여운 모습으로 보이게 하였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은 캡을 착용함으로써 더 귀엽게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6〉에서 볼 때 여성성 평가는 목걸이와 스카프에서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 40대가 목걸이나 스카프를 착용했을 때는 여성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즉 40대 여성은 20대보다 티셔츠에 목걸이나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이 더욱 여성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귀여움성은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7〉과 같다. 액세서리 관심이 높은 집단은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의 20대 여성을 40대보다 더 귀엽다고 평가하였고,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20대 대상자도 40대보다 더 귀여움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액세서리 관심이 낮은 집단은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의 20대와 40대를 유사하게 평가하였다.



〈그림6〉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여성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



a: 액세서리 관심-하 집단, b: 액세서리 관심-상 집단

〈그림7〉 지각자의 액세서리 관심,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귀여움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

V. 결 론

본 연구는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고, 지각자의 액세서리 관심도,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 착용이 여성의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액세서리 착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12개의 자극물을 사용하였다. 피험자는 서울지역의 여대생 178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액세서리 착용은 전문성과 4가지 매력성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매력성 평가는 매력성, 귀여움성, 여성성, 개성으로 분류되었다.

12개의 자극물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액세서리 착용은 여성의 전문성 및 매력성의 모든 요인의 평가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전문성은 40대 여성이 재킷에 스카프를 장식한 모습이 가장 높았으며, 티셔츠에 캡을 착용한 모습은 전문성이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재킷 착용 모습이 티셔츠 착용보다 전문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나, 40대 여성은 재킷과 티셔츠에서 모두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이 전문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매력성은 40대 여성이 재킷을 입고 앞에 스카프를 장식한 모습과 20대 여성이 티셔츠를 입고 캡을 착용한 모습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여성이 티셔츠에 캡을 착용한 모습은 매력성이 가장 낮았다. 귀여움성은 액세서리 착용보다는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20대 여성이 티셔츠를 입고 캡을 착용한 모습이 귀여움성이 가장 높았다. 여성성은 40대 여성이 티셔츠 차림에 재킷을 입고 어깨에 스카프를 장식한 모습이 가장 높았으며,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캡의 착용은 여성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40대 여성이 재킷을 입고 햇을 착용한 모습은 개성이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티셔츠를 입고 캡을 착용한 모습도 비교적 개성이 높았다. 즉 모자의 착용은 개성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티셔츠에 액세서리를 착용한 자극물을 대상으로 지각자의 액세서리 관심,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효과에서 지각자의 액세서리 관심도는 전문

성, 매력성, 여성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액세서리 관심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극물의 전문성, 매력성, 여성성을 모두 낮게 평가하였다. 지각대상자의 연령은 귀여움성, 여성성, 개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20대 여성은 40대보다 여성성이 더 낮게 보였으나, 귀여움성과 개성은 더 높게 지각되었다. 액세서리 착용은 전문성, 귀여움성, 여성성, 개성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스카프를 착용한 여성은 전문성, 개성, 여성성이 높았으며, 귀여움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캡을 착용한 모습은 귀여움성이 가장 높았으나, 여성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여성성이 높았으며,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전문성과 개성이 낮게 보였다.

지각대상자의 연령 및 액세서리 착용에 따라 전문성, 매력성, 귀여움성, 여성성은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40대가 스카프나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는 20대가 착용했을 때보다 전문성이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액세서리 착용여부는 20대보다 40대 여성에게 더 뚜렷이 영향을 주었다. 40대는 스카프를 착용했을 때 매력성이 가장 높았으나, 20대는 캡을 착용했을 때 매력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은 20대보다 40대에게 더 매력성을 감소시켰다. 20대 여성은 스카프를 착용했을 때 귀여움성이 감소되었으나, 캡을 착용했을 때 귀여움성이 증가되었다. 40대 여성은 20대보다 목걸이나 스카프를 착용했을 때 여성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귀여움성은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액세서리 관심이 낮은 사람들은 목걸이를 착용한 20대와 40대 여성을 유사하게 보았으나, 액세서리 관심이 높은 집단은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의 20대를 40대보다 더욱 귀엽다고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스카프 착용은 전문성, 여성성, 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목걸이 착용은 여성성을 높이고, 캡의 착용은 귀여움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40대 여성이 재킷을 입고 스카프를 장식한 모습은 전문성과 매력성을 모두 향상시키며 티셔츠에 캡을 착용한 경우는 매력성이 낮아지나, 20대 여성이 티셔츠에 캡을 착용한 경우는 매력성이 높아진다. 액세서리는 연령이 낮은 여성보다 연령이 높은 여성에게 매력성을 증진시키는 효

과가 더 높았으며, 스카프는 40대의 매력성을 높이고 캡은 20대의 매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외모에서 전문성과 매력성을 높이는 것은 액세서리 단독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각대상자와 착용한 의복유형이 액세서리와 조화됨으로 인해 상승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양한 액세서리 중에서 제한된 일부 품목만을 사용하였고 색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진의 효과가 실제 사람이 착용하였을 경우의 평가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재킷과 티셔츠, 캡과 햇 등 서로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정장과 캐주얼 복장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의복을 한가지로 통제하여 다양한 액세서리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킨 자극물을 사용하며, 액세서리 색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또한 T.P.O에 따른 액세서리 효과와 함께 피험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주현, 강혜원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 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pp.984-994.
- 2) 이명희, 이미연 (2004). 여성 외모의 대인매력 평가 연구. *복식* 54(6), pp.101-114.
- 3) Thurston, J. L., Lennon, S. J., & Clayton, R. V. (1990).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 pp.139-150.
- 4) 김재숙, 김희숙 (1992). 의복 범주가 젊은이의 대인 지각에 미치는 영향: 유행성 및 착용자의 체형과 관련지어. *한국의류학회지* 16(4), pp.371-378.
- 5) Lee, M-H (2005). Influence of hairstyl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4(2), pp.56-65.
- 6) 이송자, 이현정 (1996). 진주지역 여성의 액세서리 착용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경남문화연구* 18, pp.283-303.
- 7)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1999). *Fashion dictionary*. 교문사, p.410.
- 8) 김영인, 강죽형, 김지선, 김지영, 김혜수, 박영주, 이미정, 한소원 (2001). *현대 패션과 액세서리 디자인*. 서울: 교문사, p.4.
- 9) 이현숙, 이정숙 (2002). *패션과 액세서리*. 서울: 도서출판신정, p.50.
- 10) 권미세 (1993). 패션코디네이션 연구 II: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경북실업전문대학 논문집* 12, pp.65-78.
- 11) 이현숙, 이정숙 (2002). *Op. cit.*, pp.110-117.
- 12) 이미연, 이명희 (2002).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 (제2보): 소재, 소매와 장식유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8), pp.1216-1227.
- 13)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재킷 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pp.1111-1121.
- 14) 이송자, 이현정 (1996). *Op. cit.*, pp.283-303.
- 15) 조기년 (2004). 직장여성의 외적 Self Image Making 인식 정도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23.
- 16) 양리나 (2001). *패션 스카프 연출*. 서울: 대왕사, pp.283-303.
- 17) 한명숙 (2004). 남·여 대학생의 두발, 신발, 장신구의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11), pp.1404-1414.
- 18) 한명숙, 하희정 (2003). 남·여 대학생의「~답다」에 대한 성 역할 지각에 관한 연구: 두발, 신발, 장신구를 중심으로. *복식문화학회지* 11(5), pp.767-777.
- 19) 통계청 (2005). 2005년 12월 고용동향, p.19. 자료검색일. 2006. 1. 10. 자료출처 <http://www.nso.go.kr/nso2005/index.jsp>
- 20) 정다미 (2003). 전문직 여성의 특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논총* 25, pp.227-239.
- 21) Thurston, J. L., Lennon, S. J. & Clayton, R. V.

- (1990). Op. cit., pp.139-150.
- 22) Lee, M-H. (2005). Op. cit., pp.56-65.
- 23) Bell, E. L. (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pp.8-12.
- 24) Behling, D. (1995). Influence of dress on perception of intelligence and scholastic achievement in urban schools with minority population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3(1), pp.11-16.
- 25) Bulter, S., & Rossel, K. (1989). Research note: The influence of dress on student' perceptions of teacher characteristic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7(3), pp.57-59.
- 26) Damhorst, M. L. (1984-1985). Meanings of clothing cues in social context.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3(2), pp.39-48.
- 27) Rees, D. W., Williams, L. & Giles, H. (1974). Dress style and symbolic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ymbology* 5, pp.1-7.
- 28) 전호경, 황선진 (1998). 직장상황 임산부의 의복 스타일과 직업유형이 호의도와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6), pp.706-715.
- 29) 강경자, 임지영 (1996).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5), pp.753-768.
- 30) Bell, E. L. (1991). Op. cit., pp.8-12.
- 31) 이명희 (2003). 지각자의 유행관여가 의복색 지각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7), pp.851-861.
- 32) Paek, S. L. (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personal trait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pp.10-16.
- 33) 류숙희, 김보연 (2002). 라이프스타일이 의복스타일 이미지평가와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2), pp.227-238.
- 34) 이은령, 이경희 (1996). 실루엣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pp.631-646.
- 35) 이주현, 강혜원 (1995). Op. cit., pp.984-994.
- 36) Thurston, J. L., Lennon, S. J. & Clayton, R. V. (1990). Op. cit., pp.139-150.
- 37) 이미연, 이명희 (2002). Op. cit., pp.1216-1227.
- 38) 김유진, 이경희 (2003). 현대패션에 대한 감성과 감정의 관계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7(3/4), pp.418-428.
- 39) 이미연, 이명희 (2002). Op. cit., pp.1216-1227.
- 40) 김유진, 이경희 (2003). Op. cit., pp.418-428.
- 41) Thurston, J. L., Lennon, S. J. & Clayton, R. V. (1990). Op. cit., pp.139-150.
- 42) 양리나 (2001). Op. cit., p.91.
- 43) 황미선, 이명희 (2005). 지각자의 성격특성이 의복의 시각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복식* 55(7), pp.89-100.
- 44) 이명희 (2003). Op. cit., pp.851-861.
- 45) 이명희, 강승희 (1998). Op. cit., pp.1111-1121.
- 46) 한명숙, 하희정 (2003). Op. cit., pp.767-777.